

제목: 이스라엘군, '하마스 거점' 알시파 병원 전격 진입...심야 정밀표적 작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로 규정하고 15일(현지시간) 새벽 병원 진입 작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낸 성명에서 "첩보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알시파 병원의 특정 구역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 측에 병원 내 군사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복잡하고 민감한 환경에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훈련을 받은 의료진과 아랍어 사용자가 진입 병력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병원 진입 전에는 폭발물과 테러범들과 조우했고 이들을 제거할 때까지 교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병원 측에 의료장비와 인큐베이터, 유아식 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세바브는 이스라엘 탱크가 의료단지에 들어온 가운데 군인 수십명이 응급실에 진입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슈라프 알키드라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은 알자지라방송에 "이스라엘군은 병원 지하실을 수색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시파 병원에는 약 600명의 환자와 200~500명의 의료진, 1500여명의 피란민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진입 과정에서 환자나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부에서 무기 등 하마스의 자산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병원에 하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과 미 국방부도 일부 기밀을 해제하며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군사기지가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본거지라는 주장에 미국이 동의하자 전격적으로 병원에 진입했다.

그러나 하마스와 병원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발표 후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알시파 병원 진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백악관과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거짓 서술을 받아들인 것은 점령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더 많은 학살을 저지르도록 한 ‘청신호’가 됐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에 병원 환자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 알카일라 팔레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이번 습격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라며 “환자와 의료진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제목: 미·중 정상 만날 ‘호화 저택’, 시진핑 취향 저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만남을 가질 장소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시 주석은 이전 방미였던 2017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했다.

AP통신은 1년 만의 대면 회담을 하게 된 두 정상의 만남 장소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에 있는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라고 1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일정을 알리면서 지역을 ‘노던 캘리포니아’라고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의 외딴 지역에 있는 파일롤리 에스테이트가 회담 장소로 낙점된 사실이 알려졌다.

파일롤리는 미국에서 역사적 사유지로 유명하다. 1850년대 서부시대 골드 러시(Gold rush)가 종료된 뒤 1917년 개인 거주지 용도로 지어졌다. 지금은 미국의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존하는 일을 맡는 단체인 ‘역사적 보존을 국가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의 저택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적인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샌프란시스코에 물을 공급하는 업체 ‘스프링 밸리 워터 컴퍼니’의 사장이었던 윌리엄 B. 번 2세 부부가 지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금광의 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화려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장식, 엄격한 비율과 좌우대칭, 웅장한 외관 등 조지아식 건축풍이 그대로 반영됐다. 조지아식 건물과 장식은 우아함과 촉감으로 유명했는데, 파일롤리에서도 이같은 특색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제목: 유엔 위원회 또 北인권결의안 채택... 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내용도 포함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은 컨센서스 절차에는 참여했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추가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동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한 내용 등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은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담겼다.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대상으로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때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발언 신청을 통해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송환됐다는 보도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탈북민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대신 인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모두 거짓이고, 조작된 내용의 문서"라며 "범죄를 저지른 뒤 가족을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위 증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언급하며 "미국과 서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거부권 대신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의 교전을 즉각 중단하고 인질을 무조건 석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법 준수와 어린이 등 민간인에 대한 보호도 강조했다.

####

제목: 이스라엘군, '하마스 본거지' 알시파 병원 전격 진입.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로 규정하고 15일(현지시간) 새벽 병원 진입 작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낸 성명에서 "정보와 작전상 필요에 따라 알시파 병원의 특정 구역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정밀하고 표적화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마스 측에 병원 내 군사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복잡하고 민감한 환경에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훈련을 받은 의료진과 아랍어 사용자가 진입 병력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병원 진입 전에는 폭발물과 테러범들과 조우했고 이들을 제거할 때까지 교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병원 측에 의료장비와 인큐베이터, 유아식 등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세바브는 이스라엘 탱크가 의료단지에 들어온 가운데 군인 수십명이 응급실에 진입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슈라프 알키드라 가자지구 보건부 대변인은 알자지라방송에 "이스라엘군은 병원 지하실을 수색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시파 병원에는 약 600명의 환자와 200~500명의 의료진, 1500여명의 피란민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진입 과정에서 환자나 병원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병원 내부에서 무기 등 하마스의 자산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병원에 하마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과 미 국방부도 일부 기밀을 해제하며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군사기지가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본거지라는 주장에 미국이 동의하자 전격적으로 병원에 진입했다.

그러나 하마스와 병원 측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발표 후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점령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알시파 병원 진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백악관과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거짓 서술을 받아들인 것은 점령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더 많은 학살을 저지르도록 한 '청신호'가 됐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에 병원 환자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 알카일라 팔레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이번 습격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새로운 범죄"라며 "환자와 의료진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